

공동체 소식

▣ 평협회 안내

- 21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Holy Trinity 체육관 이용 협조 안내

- HT에서 어린이 안전 및 시설보안을 위한 협조 안내입니다.
- 체육관 이용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용후 보호자는 문을 확실히 닫으시기 바랍니다.

▣ 미사 봉헌 안내

- 미사 예물을 봉헌시 봉헌자(이름 세례명), 지향자(이름, 세례명)를 정자로 써주십시오.
- 생미사(감사, 기원), 위령미사 중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미사 지향자가 비신자일 경우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미사 중에 영혼이라 호칭합니다.)
- Check으로 예물 봉헌시 받는 사람은 KCC로 써주시면 됩니다.
- 미사 예물 금액을 봉투 뒷면에 적어주십시오.
- 미사 예물은 전례부에서 본당(KCC)으로 입금합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근처 한인성당이나 미국성당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매월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김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26	221	498	33
차 주	37	219	153	19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안젤라)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차 주	김시연(엘리사벳)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훈(로베르또) 김정원(안젤라)
차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정예진(하나)

▣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조진환(베드로)
차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차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협조 고맙습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 주일입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 40-42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ㄴ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 화 답 송 :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생명의 말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경은 우리를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단지 하느님과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특징을 가진 인물들 역시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보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닮았기에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의 짧은 이야기를 들읍시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루카복음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라자로의 소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타니아라고 소개하고 (요한 11,1)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요한 11,3). 복음서가 많은 내용을 전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할 자리에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르타를 잘 표현하는 것은 봉사(디아코니아)라는 용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위의 여수선함이나 분주함에 동요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이고 그녀를 표현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기도와 관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교부들과 많은 영성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봉사와 기도.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봉사하는 것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없이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바른 처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르타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앙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봉사는 쉽게 공허해집니다. 반면에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실천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삶을 통해 실천

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신앙인에게 마르타와 마리아의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에 바탕을 둔 봉사와 봉사를 통해 표현되는 기도의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오늘 복음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라."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햇볕이 뜨겁지요. 그렇다고 손으로 가려주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벼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익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요.

지금 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볕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게 물을 주는 것.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루카 10,4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

이탈리아 움브리아에 종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바꾸어 주십시오 ...

그날 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창고로 데려가시더니 "들어가서 바꾸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갖가지 크기와 모양의 십자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적당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거기엔 오랜 친구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를 찾아낸 그는 주님께 허락을 받고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 그 십자가에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페이스북 '10초 읽기'를 번역해봅니다. '10초' 길이라지만 저에게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27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움브리아 아저씨처럼 저도 주님께 즐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 주시길, 그렇게 십자가의 무게를 바꾸어주시기를....

당연히 제 고해성사의 단골 테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한 신부님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해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다독여주셨고, 어느

성지의 신부님은 "요즘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가 귀한 시대에 여기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위로 받고 돌아가시길 빕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울컥 눈물을 쏟고 나면 십자가가 잠시 가벼워져 다시 짊어질 용기를 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보아도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십자가'인 줄 모르고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세 번, 한 번에 한 시간이 넘게 성모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문밖까지 다 들리는 기도의 90%가 이민 가서 잘 살고 계신 시아주버니를 위한 반복 기도였습니다. 속 좁은 저는 그 기도 분량도 섭섭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는 그 아들이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남은 10%라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요 할머니의 매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고마운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계시던 방 쪽에서 낭랑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봅니다.

김미희 마리스텔라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서하영 아폴로니아